분별 쉬면 그것이 곧 보리

〈菩提〉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㉒ 옷 속의 여의주

〈원문〉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옷 속에 여의주를 매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궁핍을 면치 못해 객지를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는 것과 같다. 비록 빌어먹는 신세지만 여의주는 그대로 옷 속에 있느니라. 문득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 옷 속에 구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는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므로 큰 부자인 셈이니라. 그런데 이 여의주는 본래 그의 옷 속에 있었던 것일 뿐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니니라.

아난아, 저 연야달다가 미쳐 달아났던 광기(狂氣)가 쉬면 미치지 않았을 때로 돌아오리라. 비록 광기가 쉬지 못한들 보리의 성품이 어찌 유실되리요. 너의 마음속에 연야달다의 광기 같은 것이 쉬면 곧 보리라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두루한 것이라 남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니라."

〈강설〉 여의주(如意珠)라는 보배 구슬이 있다. 범어로 마니(摩尼:mani)라 하여 마니주(摩尼珠)라고도 한다. 이 구슬의 효능이 재난과 질병을 없애주고 더러운 물을 맑게 해주며 물의 색깔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때로는 '수청주(水淸珠)'라 부르기도 한다.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풍운조화(風雲造化)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다.

〈법화경〉의 보주유(寶珠喩)와 같은 말로 옷 속에 여의주를 매고 있는 사람이 거지행각을 한다는 이야기다. 구슬이 있다는 걸 모를 때는 걸식으로 연명하지만, 알고 나면 여의주가 값비싼 보석이므로 부자라는 말이다. 또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들어있는 말이다. 거울을 보다가 미쳐 달아난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면 미치지 않았을 때의 본래 상태가 회복되듯이 이 대목에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여래장묘진여성인 보리(菩提)가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면 본래 정신이 되는 것과 같아 '쉬면 보리(歇則菩提)'라는 말이 나왔다. 가끔 인용되는 말이다.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이 생겨 진로(塵勞) 속에서 허덕이므로 중생의 세계가 되었으나 이것이 쉬면 부처의 세계라 따로 부처의 세계가 없다는 말이다.

보리인 진여(眞如)의 마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나고, 깨끗하고 밝아 본래 법계에 두루한 것이라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다시 마음의 본체(菩提)가 '횡변시방(橫徧十方)이요 수궁삼제(竪窮三際)'하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공간적으로 시방이 다 포함되고 시간적으로 삼세에 뻗쳐 있다는 이 말은 각체(覺體)인 보리가 무궁무변(無窮無邊)하다는 말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러한 각체를 중생은 세 가지 상속하는 분별 때문에 등지게 된다고 하였다. 세 가지 상속이란 세간(世間), 중생(衆生), 업과(業果)라 하였다. 세간 상속이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차별을 내서 분별하는 것으로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상대적인 분별을 말하고 중생 상속은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 중생을 핑계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업과 상속은 업에 따른 과보를 이리저리 분별하는 것이다. 이 삼종상속(三種相續)이 끊어지면 망(妄)의 원인도 없어진다고 경에서는 말하였다. 이러한 분별이 쉬는 것이 결국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는 것이다.

〈신심명(信心銘)〉 첫 구절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至道無難 唯嫌揀擇)"라고 했듯이 세 가지 상속하는 것을 분별하지만 않으면 따로 닦을 것도 없다는 뜻이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르니까 하는 것이지, 알고 나면 닦을 것이 없어진다는 말로 이러한 경우를 닦을 게 없이 닦는 '무수지수(無修之修)'라 한다. 〈임제록〉에도 이러한 말이 나온다.

若人修道道不行 만약 누군가 도를 닦는다 하면 도는 닦아지지 않는다./萬般邪見競頭生 온갖 그릇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智劍出來無一物 지혜의 칼을 빼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베어 버려야/明頭未現暗頭明 밝음이 나타나기 전에 어둠이 밝아지리라.

한 생각 일어나면 이미 망(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망(妄) 그 자체도 진(眞)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 그대로가 거울이듯이 영상을 떼어 놓고 영상이 안 나타나게 하는 거울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㉒ 부처의 지각 경계

지금 보고 듣는지 확인하라

세상은 멈추어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존재한다는 마음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번민을 가진다. 우리가 번민에 대해 모르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오온은 번민이 생길 수 없다는 지극히 간단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번민이 왜 개체적인 번민일까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욕망에 따라 번민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온의 화합은 사람의 손금처럼 같은 것이 없다. 그만큼 형성된 길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양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물질의 세상은 그럴 수 없다. 오온은 조건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조건만큼의 인연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므로,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지만 마음이 위를 볼 필요도 없고, 아래를 볼 필요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면 개체의 번민은 나타날 수 없게 된다. 만약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변하는 모양의 상태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를 돌이켜 볼 수만 있다면, 인연으로 모양이 생겨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속에 나라는 실체가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인무아와 법무아를 증득하여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어 없애고, 분단생사와 번역생사를 멀리 벗어나야 하네. 탐진치의 근본 번뇌와 성냄, 한탄, 전도된 생각 등의 수번뇌를 끊어낸 것을 일컬어 부처의 지각 경계라 하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끼사 고따미라는 여인이 자식을 잃고 정신이 혼미하여 온 마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아들을 구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그곳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라고 하셨다. 물론 까사 고따미는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녀는 부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시켰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법문하신다. "끼사 고따미여,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그를 데려가 버리느니라." 끼사 고따미는 설법을 듣고 일체의 모든 현상은 무상하여 오래 가지 못하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 욕망을 성취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불만족 속에 죽게 되고, 일체의 사물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끼사 고따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가의 길을 가게 된다. 끼사 고따미가 알아낸 것이 예전에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아니다. 무상하고, 무상한 것을 소유하려 하고, 무상한 것을 소유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물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만, 집착 때문에 무상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의 눈과 귀가 따로 있고, 중생의 눈과 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는 것에 오고감이 없는 줄 알고, 마음 안에 다른 모양을 만들지만 않으면, 찾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버리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모양이나 느낌에 나라는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과거에 지어놓은 인연의 습기가 살아나, 줄 것이 있으면 주게 되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게 되는데, 그 일은 그가 멈추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이 된다. 인연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연이 끊어진 곳에서 마지막 남은 몸의 인연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관찰하여 주체가 없는 줄을 여실히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비범하여 우러를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바쁜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곰곰이 참구하는 지혜가 잃어버린 보배를 발견하는 일이 된다. 부처님의 지각 경계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에 있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곳에 있지 않음을 알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여기에 가졌다는 것이 있고, 가진다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세상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비상비비상처정'을 이루는 방법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㉒ 비상비비상처정

살갗 관법

살갗 관법은 손가락 운동과 병행된다. 검지를 편안하게 구부린다. 자세는 의자에 앉은 바른 자세, 무릎 높이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워 준다. 양손을 수평으로 해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검지를 구부린다. 의지를 미심에 둔다. 삼차신경 안분지의 영역을 살펴보는 관법이다. 나선 호흡으로 꼬리뼈까지 들이쉰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머리부를 씻어준다. 자자작 자자작 자극이 생겨나고 심장 박동이 집중한 부위에서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 쪽으로 올라간 경로에서는 두개골 안쪽 감각을 살펴본다. 눈 옆으로는 관자놀이까지 상태를 살펴보고 눈 아래쪽으로는 상악뼈 접점까지를 살펴본다.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경수부를 세 수한다. 그러면서 가로막 신경의 경로를 관찰한다. 경수 3, 4, 5번에서 시작된 가로막 신경이 쇄골 밑으로 주행하여 폐 심장으로 들어가고 횡격막을 거쳐서 간, 비장, 부신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살펴보는 관법이다. 날숨에 목신경 3, 4, 5번의 경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살갗의 감각을 살피고 해당 장부의 상태를 살펴본다. 특히 호흡이 들고날 때 횡격막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그 움직임으로 야기되는 장부 상태를 지켜본다. 부신에 집중했을 때 열기를 감지하고 그 열기의 경로를 지켜볼 수 있으면 된 것이다. 호흡을 꼬리뼈까지 나선으로 들이쉰 다음 천수부를 세수한다. 의지는 천골의 팔요혈(八凹穴)을 주시한다.

검지를 억제하면 검지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이 수축되고 항진된 상태이다. 특히 자율신경의 부교감 체계가 항진되어 있다. 천골에는 좌우로 여덟 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그 구멍으로 천골신경이 주행한다. 검지를 억제하면 천골신경이 수축되고 부교감 체계가 항진된다. 그 상태에서 천골 신경의 상태를 주시한다. 신장, 방광, 직장, 성선신경총의 상태가 드러나고 천골 안쪽에서 반응하는 교감신경의 상태가 드러난다. 살갗 호흡을 통해 천골부 세수를 충분히 이루었어도 이 과정에서 그때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엄지손가락 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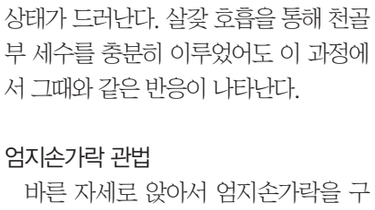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린다. 그 자세에서 뒤통수 시각피질 부위에 의지를 둔다. 나선 호흡으로 꼬리뼈 끝까지 들이쉰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뒤통수를 주시한다. 자극감이 생겨나고 심장박동이 느껴지면 날숨의 감각을 얼굴 쪽으로 끌고 온다. 뒤통수에서 상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관찰한다. 경로상에서 자극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극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켜본다. 이때 함께 주시해야 할 부위가 있다. 멈춘 부위에 자극이 일어날 때 다른 부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자극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다. 특히 상악부에서 멈추었을 때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체감각 진단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다양한 부위에서 자극이 일어난다. 폐, 심장, 간, 비장에서부터 각 부위의 근골격에 이르기까지 무려 40군데 정도에서 다양한 자극이 일어난다. 충분하게 관찰하고 숙지되었으면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엄지 억제 흉수부 관법

호흡을 꼬리뼈까지 들이쉰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흉수부 전체를 관찰한다. 자극감과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면 가슴신경 전체로 심장박동을 확장시킨다. 날숨의 감각과 심장박동을 동치시킨 상태로 흉부 전체를 훑어가면서 살갗의 감각을 지켜본다. 특정한 자극이 생겨나면 그 부위에서 멈추고 다른 부위상태를 함께 관찰한다. 다리부에 자극이 오는 것도 함께 관찰한다. 어떤 경로로 자극이 내려가는지를 살펴보고 경로를 숙지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